

#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위하여: 함께 만드는 K-CPTED 실현 방안

임보영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허재석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원

## 범죄예방환경센터의 역할 및 성과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에 대한 개념이 국내에 소개되기 시작한 시점은 1980년대이며, 2000년대 이후에 범죄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관련 연구 및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특히 2013년 서울시 ‘소금길’ 사업이 성공모델로 평가받아 CPTED가 주목받기 시작하였고, 2015년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정으로 CPTED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건축공간연구원은 2016년 1월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이 선정됨에 따라 건축공간연구원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이하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 글에서는 지난 8년간 센터의 역할과 성과를 되짚어보고, 한국형 CPTED를 위한 향후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 정책 지원: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 지원 및 제도적 기반 마련

건축공간연구원은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 초기에는 건축물 단위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지침 연구(2012)’와

‘범죄예방 환경설계 매뉴얼 개발 연구(2014)’를 수행하며 「범죄예방 건축 기준 고시」 제정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2019년에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범죄예방 의무적용 건축물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고시가 개정되었다.

최근에는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하며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1차 국가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 계획(2023) 수립과 대통령 훈령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규정」 제정(2022. 11. 16.) 등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평가지표와 CPTED 사업의 표준 매뉴얼을 개발할 예정이다.

**사업 지원: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의 효율적·효과적 추진을 위한 컨설팅**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는 법무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 등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CPTED 관련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법무부와 경찰청을 중심으로 사업 대상지 선정부터 현장답사, 설계 컨설팅, 사후 평가 및 관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은 2014년 추진된 범질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법무부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 예시(비상벨 및 방범창 설치, 범죄예방키트 및 홍보물품 지원)

출처: 손동필 외(2022c, p.66, p.71, p.73)



경찰청 CPTED 사업 우수사례(충북 영동군)

출처: 경찰청, 건축공간연구원(2022, p.66, p.71, p.73).

을 위해 다양한 부처와 협업하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는 사업 기획 단계부터 지원하여 현재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의 초기 모델이라 할 수 있는 범질서실천운동통합모형을 개발하여 지금까지 법무부와 함께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2016년 12개소를 시작으로 2023년 현재까지 78개소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범죄 취약계층인 위기청소년(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공간의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키트와 홍보물품 등을 지원하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였다.

경찰청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은 2005년 부천시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하였으며, 2013년 ‘서울시 소금길 조성사업’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건축공간연구원과 경찰청은 확대되고 있는 CPTED 사업의 효율적·효과적 추진을 위해 2019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는 매년 경찰청과 협업하여 경찰청 CPTED 사업에 대한 컨설팅과 사업 평가를 하고 있으며, 실무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 등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 기초연구: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사업 지원과 함께 우리나라 특성에 부합하는 범죄예방 가이드라인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CPTED 이론은 제인 제이콥스(1961)의 거리의 눈(Eyes on the streets)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범죄예방의 이론은 레

이 제프리(1971)와 오스카 뉴먼(1972)을 통해 발전되었다. 따라서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태동한 CPTED 이론 및 사례를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한국사회의 실정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CPTED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는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범죄예방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2018년부터 7개 지역 대상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업 모니터링과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는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4년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현황조사 및 모니터링 연구(2015)’,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 현황과 평가(2018)’, ‘범죄예방 환경조성 시설·기법의 효과성 분석 연구(2019)’,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의 효과성 분석 연구(2019)’,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의 효과성 분석(2020)’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관련 연구를 통하여 CPTED 사업의 모니터링 절차와 평가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실제 사업 대상지의 범죄 데이터를 활용하여 CPTED의 범죄예방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최근에는 CPTED 분야에서의 가상환경과 VR 기술의 적실성을 검증하고 적정기준 및 요소를 도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가상환경을 활용한 실험실 기반의 연구 방법은 다양한 환경요인을 통제하고 반복실험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현장감이 낮아 실제 현장과의 괴리감이 존재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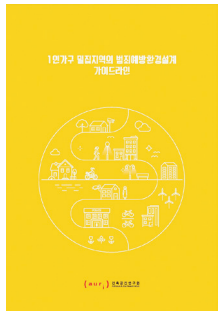
지역 맞춤형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 발간물



도농복합지역의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2018)



범죄로부터 안전한 우리집 만들기 -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2019)



1인가구 밀집지역의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2020)



노상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가이드라인(2021)



어촌지역의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2022)

출처: 건축공간연구원 홈페이지([https://auri.re.kr/publication/list.es?mid=a1031600000&publication\\_type=paper](https://auri.re.kr/publication/list.es?mid=a1031600000&publication_type=paper))

실제환경  
구축VR 실험  
모습

#### VR을 활용한 범죄예방환경설계요소 도출 연구 실험 모습

\* 실제환경 참조 대상지: 서울특별시 상도로 47길 일원

출처: 손동필 외(2022b, p.31, p.45); 카카오맵(<https://map.kakao.com>)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 가상환경은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진보함에 따라 이전과 달리 현실구현도 높아졌으며, VR 기술을 활용하면 현장감과 몰입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이에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는 가상환경을 활용하여 ‘범죄 두려움 저감을 위한 조도기준(2021)’과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요소 도출 연구(2022)’를 수행하며 새로운 CPTED 연구 방법론을 정립하고, 우리나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저층주거지의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도시 설계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였다.

#### 기반 마련: CPTED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는 2019년부터 매년 경찰청과 공동으로 범죄예방환경설계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경찰청-건축공간연구원 범죄예방환경설계 컨퍼런스는 CPTED 사업과 정책연구의 성과를 실무자와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대상으로 발표하여 CPTED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논의의 장이라 할 수 있다. 2023년 4월에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CPTED 정책 발전 방향’을 주제로 대한건축학회 특별 세션을 개최하여 최근 진행하고 있는 법무부 범죄





2022 경찰청-건축공간연구원 범죄예방환경설계 컨퍼런스(좌), 2023 대한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공공기관 세션(우)

예방 정책 및 사업의 방향과 국내외 CPTED 사업의 효과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범죄예방환경연구의 향후 과제

CPTED가 본격적으로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시점은 2013년 ‘서울시 소금길 사업’이 추진될 시기라 할 수 있다. 소금길은 대표적인 CPTED 사례로 소개되었으나 재개발 직전까지는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이전의 불안감 높은 공간으로 방치되었다. 현재 재개발로 CPTED의 성공 사례로 불리던 소금길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경찰청과 법무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부처, 전국 지자체에서 CPTED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CPTED의 대표 사례로 ‘소금길 사업’이 회자되고 있다. 매년 전국에서 다양한 CPTED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국민에게 소개할 수 있는 대표 사례가 없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이는 많은 CPTED 사업이 범죄가 발생하는 공간의 특성이나 지역이 갖는 인구·사회·물리 환경의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이고 시설물 설치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국정과제에 범죄예방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면서 지자체에서 CPTED 사업 의지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환경에 맞는 CPTED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는 지역사회의 안전과 안녕,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특성을 고려한 CPTED 사업 추진 방향, 즉 ‘한국형 CPTED’나 ‘K-CPTED’ 모델 개발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몇 가지 향후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근거법 제정 지원

현재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은 별도의 근거법이 없으며,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추진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체계적인 사업추진과 사후 유지·관리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 CPTED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어 최근 법무부를 중심으로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협의회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기본법이 부재하여 사업추진의 충분한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CPTED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근거법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미 CPTED 사업의 근거법 마련을 위해 2016년부터 법안이 발의되었다가 폐기를 반복하였으며, 현재도 계류 중인 법안이 존재한다.

이에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는 CPTED 사업의 근거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근거법 제정에 필요한 정책 지원 및 연구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 우수 사례 발굴 및 표준 매뉴얼 개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은 지자체의 역량이나 실무자의 의지 등에 따라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많은 예산과 인력 지원이 있음에도 단순한 CCTV 설치나 가로등 정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역이 있는 반면, 지역사회 및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 스스로 환경을 개선하는 등 체감도 높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CPTED 사업에 대한 이해도 차이로 발생한 문제로 볼 수 있으며, CPTED를 단순히 방범시설물 설치 사업으로 오해하는 실무자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CPTED 실무자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컨설팅 지원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는 실무자 교육 및 컨설팅 지원과 함께 CPTED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홍보하고 이해도 낮은 실무자도 따라 할 수 있는 표준 매뉴얼 개발을 통해 지역 간 편차를 줄이고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

## 한국의 특성에 맞는 K-CPTED 모델 발굴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은 기본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불안감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넓게 보면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은 이미 도시재생이나 신활력증진사업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K-CPTED는 단순히 범죄를 예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전반의 안전,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해에 법무부와 함께 개발한 위기청소년 지원 모델과 올해 센터에서 집중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밀집지역에 대한 CPTED 연구는 K-CPTED의 대표적인 모델로서 확대할 수 있는 좋은 예시이다.

물론 K-CPTED 모델 발굴과 동시에 기존 CPTED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CPTED 사업은 시행에 그치고 있어 사업 이후 범죄율 및 범죄 두려움 변화, 시설물 유지·관리 현황 등을 파악할 길이 없다. 따라서 이미 추진된 CPTED 사업이 범죄예방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사업의 효과성은 얼마나 지속되는지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가 주민 체감도 높은 CPTED 사업, 나아가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생활안전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유광흠, 조영진, 강석진, 김상문, 이경훈, 김철중, 손동필, 양선순. (2015). 실무자를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북. 건축공간연구원.
- 2 손동필, 성은영, 임보영, 허재석. (2022a).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법무부.
- 3 손동필, 임보영, 허재석. (2022b). 가상환경을 활용한 범죄예방환경설계요소 도출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 4 손동필, 임보영, 허재석, 김연경, 변혜영, 허소영. (2022c). [위기청소년형 시범사업] 2022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지역별 맞춤형 범죄예방 컨설팅 수행 연구. 법무부.
- 5 경찰청, 건축공간연구원. (2022). 2022 경찰청-건축공간연구원 범죄예방환경설계 컨퍼런스 자료집, 46-54(2022.12.1.)
- 6 건축공간연구원 홈페이지. [https://auri.re.kr/publication/list.es?mid=a10316000000&publication\\_type=paper](https://auri.re.kr/publication/list.es?mid=a10316000000&publication_type=paper)(검색일: 2023.5.30.)
- 7 카카오맵. <https://map.kakao.com>(검색일: 2023.5.30.)